

# 고려후기 입상 아미타불도상의 재해석 -천태16묘관수행법의 영향을 통해서-

이승희\*

- I. 머리말
- II. 아미타내영도의 도상적 연원
- III. 정토왕생문화의 개화와 아미타불 도상의 창출
- IV. 고려 입상 아미타불 도상의 재해석
- V. 맺음말

## I. 머리말

고려후기의 아미타불화 중에는 허공에 선 채로 오른 손을 아래로 내려 손바닥이 보이도록 내밀고 왼손은 가슴 앞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닿은 형태의 수인을 취하고 있는 아미타불입상의 도상이 있다(도 1). 이러한 수인과 자세의 아미타불입상은 설법하는 형상의 아미타불좌상과 함께 고려후기 아미타불화의 특징적 도상으로 일반적으로 내영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내영도로 인식되는 아미타불화는 50여점의 아미타불화 중 약 30여점에 이를 정도로 고려불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들 입상의 아미타불화는 독존 형식도 있지만 관음과 세지(혹은 지장), 팔대보살 등의 협시보살을 아미타불의 양 옆에 배치하기도 하여 다양하게 변용되었다(도2, 3).

\* 홍익대학교



도 1 <阿彌陀佛圖>, 고麗 14세기, 비단에 채색, 185.0×86.5cm, 일본 교토 쇼보지(正法寺)



도 2 <阿彌陀三尊圖>, 高麗 14세기, 비단에 채색, 103.0×68.0cm, 일본 교토 지은지(知恩寺)



도 3 <아미타팔대보살도>, 고려 14세기, 비단에 채색, 143.0×87.0cm, 일본 아이치(愛知)현 토쿠가와미술관(徳川美術館)



도 4 <아미타삼존내영도>, 고려 14세기 중반, 비단에 채색, 110.0×51.0cm, 삼성미술관Leeum

‘내영’은 임종에 가까운 왕생자를 위하여 아미타불이 극락에서 인간세계로 내려와 왕생자를 맞이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아미타내영도상에는 왕생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고려 입상의 아미타불화 중에는 왕생자를 표현한 예가 삼성미술관 Leeum소장의 <아미타삼존내영도>가 유일하다(도 4). 대부분의 다른 아미타불화에는 왕생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Leeum본에 근거하여 내영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미타내영도로 인식되었던 불화의 도상은 고려불화가 주목받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연구되었다. 일본의 내영미술을 먼저 접하고 연구했던 학자들은 아미타불이 구름 위에서 서 있는 점, 오른 손을 마치 왕생자를 향해 내민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아미타내영도상이라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향우측에서 향좌측을 향한 고려 아미타불화의 내영 방향이 돈황 지역 출토의 서하 <阿彌陀來迎圖>와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고려와 서하와의 영향관계를 시사하기도 하였다.<sup>1</sup> 그러나 박도화는 이들 견해에 대해 고려의 <아미타내영도>와 내영방향이 일치하는 송대의 <아미타내영도>가 있음을 지적하고 서하 <아미타내영도>와의 밀접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sup>2</sup> 한편 홍윤식은 <아미타내영도>의 도상이 西福寺 소장 <관경16관변상도>에 표현된 摩訶受

1 기쿠다케 슌이치(菊竹淳一), 『高麗佛畫にみる中國と日本』, 『高麗佛畫』(朝日新聞社, 1981), pp. 13-14. 鄭于澤, 『シルクロードと高麗佛畫』, 『北東アジアシリーズ94報告書』(環日本海松江國際交流會議, 1995), pp. 75-122.

2 朴桃花, 『高麗佛畫와 西夏佛畫의 圖像的 관련성: 阿彌陀三尊來迎圖와 慈悲道場懺法變相圖를 중심으로』, 『고문화』 52(1998,12), pp. 65-83.

記장면과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아미타수기도’로 해석하기도 하였다.<sup>3</sup> 이후 박혜원은 고려 〈아미타내영도〉가 임종의례와의 관련 속에서 조성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론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sup>4</sup> 그러나 고려 〈아미타내영도〉 조성의 주 후원자계층인 귀족사회에 임종의례가 의식문화로 자리잡았는지에 대한 의문과 검증이 없는 것이 아쉽다. 최근에 일본 학자인 이데 세이노스케(井手誠之輔)는 ‘心中感得像’이라는 개념으로 고려의 아미타불화를 해석하였다. 즉 수행을 통해 심신을 정화시켜 聖性を 높임으로서 피안 즉 극락의 세계에 계신 부처를 시각화한 상이라는 설명이다.<sup>5</sup> ‘心中感得’이라는 개념이 천태사상과 수행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데 세이노스케의 해석은 본 연구자의 의견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sup>6</sup>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하는 점은 이제까지 내영도로 인식되었던 고려 입상의 아미타불화가 사실은 임중에 임박하여 강립하는 내영이 아닌 禪觀修行을 위한 이미지 혹은 그 결과로 얻어지는 現出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11~14세기 동아시아에서 성행했던 염불결사와 정토왕생수행법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각 나라의 수행문화와 그 결과물인 아미타불화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입상의 아미타불 도상을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고려후기의 귀족사회에서 행해졌던 천태16묘관수행법은 입상 아미타불 도상이 내영개념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고려 입상의 아미타불도상을 재해석하기 위해서 ‘내영’의 개념을 재점검하고 아미타내영 도상의 연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내영개념과 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전의 내영사상이 11~14세기 일본과 송의 정토왕생문화의 형성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결과로 생겨난 아미타불도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하겠다. 송과 일본의 동아시아 정토문화의 보편성과 독자성에 기반으로 둔 각 나라의 아미타불 도상의 이해는 고려후기 아미타불입상의 도상적 의미를 명확히 밝힐 수 있게 할 것이다.

3 洪潤植, 『高麗時代の佛畫』(동화출판공사, 1984), pp. 78-167. 同著, 『高麗佛畫에 있어來迎圖와 授記圖』, 『素軒南都泳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1984.5), pp. 133-153.

4 박혜원, 「고려시대 아미타내영도와 임종의례의 관련성 시론」, 『미술자료』 80(국립중앙박물관, 2011), pp. 45-67.

5 이데 세이노스케(井手誠之輔), 「宋·元代 불화의 특색-禮拜像의 視覺表象-」, 『동아시아 불교회화와 고려불화-제3회 국립중앙박물관 학술미술 심포지엄 자료집』(국립중앙박물관, 2010), pp. 30-43.

6 이승희, 「고려후기 정토불교회화의 연구-천태·화엄신앙의 요소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박사학위논문, 2011. 6). 필자는 박사학위논문에서 고려시대의 아미타불화에 관해 천태사상과 신앙의 측면에서 해석하였으나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내영의 개념을 혼동하여 사용하였다. 내영의 개념을 혼동했던 가장 큰 원인은 아미타내영도가 크게 발전했던 일본의 불교문화와 정토사상의 발전과정이 중국의 송과 고려의 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도상의 유사성에만 관심을 갖고 도상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박사논문에서 썼던 아미타불입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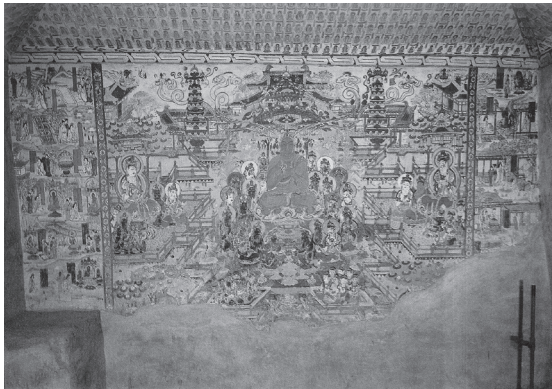
## II. 아미타내영도의 도상적 연원

정도왕생과 아미타내영을 언급한 대표적인 경전은 『無量壽經』과 『觀無量壽經』(이하 『觀經』)이다. 『無量壽經』에서 아미타불의 전생인 法藏比丘는 ‘임종 시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할 때 대중에게 둘러싸여 아미타불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발원하였다.’<sup>7</sup> 이 발원은 48願 중 19번째로 來迎引接의 願 또는 臨終現前的 願이라고 하며,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 극락의 성중에 의해 왕생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sup>8</sup>

『觀經』에서는 아미타내영을 왕생자의 근기에 따라 9품으로 나누어, 왕생하는 방법과 왕생 이후의 수행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관경』의 9품왕생관에서 왕생과정은 시간과 공간을 이동하며 설명된다. 먼저 왕생자의 근기를 언급하고 근기에 맞게 아미타불·보살 등의 ‘내영’이 이루어진다. 이어 부처님이 손가락을 한번 펴는 잠깐 사이에 극락에 왕생한 후 극락세계에 태어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보살의 지위에 이르는 無生法忍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수기를 받은 후 본국에 돌아와서 백천다라니를 얻게 된다.<sup>9</sup> 이처럼 『관경』에서는 왕생을

기점으로 시간을 前과 後로 나누고, 왕생 전후의 공간도 달라진다. 즉 아미타불이 내영하는 곳이 인간세상인 사바세계라면 왕생 이후의 장소는 극락정토인 것이다.

『觀經』에 근거해서 내영도상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唐代부터이다. 내영도상은 독립된 형식이 아닌 <16관변상도>의 구품왕생장면에서 볼 수 있다. 당대의 <16관변상도>는 이마타



도 5 <아미타정토도>, 盛唐, 敦煌 45窟

<sup>7</sup> 『無量壽經』, T. 12, “……至心發願 欲生我國(阿彌陀淨土) 臨壽終時 假令不與大眾圍繞現其人前者 不取正覺……”.

<sup>8</sup> 츠보이 슈네이(坪井俊映) 著, 李太元 譯, 『淨土三部經概說』(운주사, 1995), pp. 93-98.

<sup>9</sup> 『觀無量壽經』, T. 12, p. 344c16-345a04, “……阿彌陀如來與觀世音及大勢至無數化佛百千比比丘聲聞大眾無量諸天 七寶宮殿 觀世音菩薩 薩執金剛臺 與大勢至菩薩至行者前 阿彌陀佛放大光明照行者身 與諸菩薩授手迎接 ……自見其身乘金剛臺 隨從佛後 如彈指頃往生彼國 生彼國已 ……自見其身乘金剛臺 隨從佛後 如彈指頃往生彼國 生彼國已 見佛色身衆相具足 見諸菩薩色相具足 光明寶林演說妙法 聞已即悟無生法忍 經須臾間歷事諸佛 遍十方界 於諸佛前次第受記 還至本國 得無量百千陀羅尼門”.

정토도의 주변에 序分과 本分으로 나뉘어 표현되었다(도 5). 本分은 아미타정토의 왕생을 위해 아미타정토의 정경과 불, 보살의 형상 등을 16觀으로 나누어 설명한 부분이다. 16관 중 後三品인 14-16관까지가 구품왕생장면이다. 9품왕생장면은 아미타삼존 혹은 보살이 왕생자를 향해 속도감 있게 내영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도 6). 극락세계에 머물던 불, 보살이 왕생자를 향해 내영하고 있는 화면 속의 공간은 죽음을 앞둔 왕생자가 머무는 현실세계인 것이다.

그러나 송대 이후 즉 13세기 이후의 고려와 일본에서 조성된 <16관변상도>의 구품왕생장면에는 내영이 아닌 아미타설법회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도 7).<sup>10</sup> 화려한 전각을 배경으로 그 앞의 연지에는 연화화생한 왕생자가 아미타불을 향해 합장하고 있으며 극락조와 보주 등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 이 공간이 극락세계임을 알 수 있다. 당대의 9품왕생장면처럼 내영도상을 표현하지 않고 극락회상에서 왕생자가 설법을 듣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은 내영보다는 극락왕생한 이후의 상황에 더욱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당대 <16관변상도>의 9품장면은 시간적으로 왕생 이전이고 공간적으로 사바세계인 반면 13세기 이후의 <16관변상도>에서는 왕생 이후의 극락세계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6관변상도>에서 9품왕생장면이 변화하였다는 것은 동아시아 삼국의 정토왕생사상과 신앙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전개될 아미타불입상의 도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을 제공할 것이다.



도 6 <관경16관변상도> 중 九品往生 장면, 盛唐, 敦煌 215굴



도 7 <관경16관변상도>, 高麗 14세기 전반, 비단에 채색, 150.5×113.2cm, 일본 후쿠이현 사이후쿠지(西福寺)

<sup>10</sup> 서복사본의 도상분석과 신앙적 의미는 다음의 논문에서 상세히 서술하였다. 이승희, 「고려후기 西福寺 觀經十六觀變相圖의 天台淨土信仰의 해석」, 『美術史學研究』 第279·280號(2013,12), pp. 5-34.

### Ⅲ. 정토왕생문화의 개화와 아미타불 도상의 창출

『관경』의 왕생관이 11~14세기 일본과 송에서 꽃피운 정토왕생신앙과 그로 인해 형성된 정토수행문화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여 입상의 아미타불도상이 창출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먼저 일본 아미타내영도상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의식인 임종행의에 주목하여 아미타내영도의 발생을 이해해보고, 이어 송대 정토왕생문화가 개화되었던 문화적인 배경을 천태정토신앙의 성행과 염불결사를 통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 1. 일본의 아미타내영도상의 성립과 臨終行義

일본에서 아미타정토신앙과 사상이 새롭게 조명되며 내영미술이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헤이안시대의 승려인 겐신(源信, 942~1017)의 영향이 크다. 겐신은 天台宗 18대 좌주인 료겐(良源, 912~985)의 門徒로서, 『往生要集』(984~986)을 저술하여 일본 천태종의 본고장인 히에이잔(比叡山) 엔라쿠지(延曆寺)의 승려들을 비롯하여 헤이안 말기 귀족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불교계에 새바람을 일으켰다.<sup>11</sup> 그는 천태승으로서 10세기 후반 송대의 천태종승인 四明知禮(960~1028)와 교섭하였다는 기록이 전하기도 하지만<sup>12</sup> 그가 제시한 정토왕생의 구원관과 수행법은 일본 헤이안 시대의 불교사회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립하였기 때문에 송대 천태정토신앙의 전개양상과는 다르다.

『왕생요집』에 서술된 정토사상의 요체는 정토를 즐기어 구하여 성중의 내영을 받는다는 ‘欣求淨土 聖衆來迎觀’으로 요약된다. 즉 정토왕생을 진심으로 발원하면 ‘임종의 순간’에 ‘아미타불과 보살성중이 臨終人을 영접하여 정토에 데려간다’는 것이다. 기원 방법으로는 ‘臨終行義’를 강조하였다. 임종행의가 당시의 불교사회에서 실천적으로 행해졌던 것은 히에이잔 요카와(横川)의 수능엄원에 모여 986년에 결성한 25三昧會가 미친 영향이 크다. 25三昧會는 각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구원을 서로 돕기 위해 모인 소공동체적이지아 연대적인 성격이 강한 결사이다. 매월 15일 저

<sup>11</sup> 오타히로 타로(太田博太郎), 나카무라 하지메(中村 元), 쿠루마주 키오야지(賓田 隆) 監修, 『淨土教-圖說 日本の佛教三』(新潮社, 1989), pp. 75-78. 겐신에 관해서는 니소카 료우코(西郊良光), 『源信の生涯と思想』, 『天台宗』(大法輪閣, 2003), pp. 96-99 참고.

<sup>12</sup> 그의 정토사상이 10세기 후반부터 중국의 천태종과의 교섭을 통해 천태정토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그 영향은 三千院본에 실린 찬문에도 나타나 있다. 요시무라 토시코(吉村稔子), 『三千院藏阿彌陀聖衆來迎圖考-來迎圖の成立に關する一考察』, 『美術史』16(2006), pp. 146-163.

녁에 모여 염불삼매를 행하는 것을 결사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동료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모두 합심하여 염불해서 극락왕생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다시 말해 죽음을 앞둔 병자가 스스로 임종의식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의 임종의식을 보증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여 수행을 하고 훗날에 있을 구원의 시간을 대비한다는 것이다.<sup>13</sup>

25삼매회를 최초로 결성한 인물은 요시시게노 야스타네(慶滋保胤, 933?~1002)였으나 겐신이 참여하면서 결연의 방식을 통해 여성 및 속인의 신도 등으로 구성원의 범위를 넓혔다. 그는 근기가 낮은 대중을 포섭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염불을 정토왕생행으로 제시하는 한편 임종행의를 유행시켰다. 그 결과 그가 제시한 정토왕생수행관과 임종행의는 대중적인 불교수행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는데,<sup>14</sup> 이러한 사실은 나라(奈良) 다이마테라(當麻寺)에서 주기적으로 행했던 ‘迎講’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도 8). 영강은 죽음의 순간에 아미타불이 보살성중과 함께 정토로 데려가기 위해 내려오는 모습을 극적으로 연출한 종합예술공연이다. 아미타불의 내영순간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대중 사이에 내영신앙이 전파될 수 있는 파급력은 컸다. 겐신은 영강에서 진짜 아미타불을 감응하는 형상을 그려 배포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독립된 형식의 최초의 내영도였다.<sup>15</sup>

일본의 아미타내영도상은 정면을 바라보거나 혹은 화면의 향좌측에서 향우측으로 구름을 타고 속도감 있게 내려오는 모습이 특징적이다(도 9).<sup>16</sup>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빠르게 내려오는 표현은 아미타정토에서 사바세계로 강림하는 형상을 강조하



도 8 迎講



도 9 <아미타내영도>, 가마쿠라 14세기, 일본 교토 산젠인(三千院)

13 김성순, 『동아시아 염불결사의 연구-천태교단을 중심으로』(비움과 소통, 2014), pp. 123-130.

14 김성순, 위의 책, pp. 98-117. 25三昧會는 정주승 25인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승려들의 결사였다.

15 겐신은 華台院을 건립하여 비 전문수행자인 민간신도들을 위해 이를 직접 감각적으로 시현한 迎講을 개시하였다. 迎接會, 迎接講, 혹은 25삼매강으로 불리우는 영강에는 승속과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법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김성순, 위의 책, pp. 136-150.

16 야마모토 코지(山本興二), 『來迎圖一の正面觀から斜め構圖への展開』, 『佛敎藝術』 78(1970. 11), pp. 34-49.



도 10 구품왕생장면 중 상품상생, 〈다이아만다라〉, 무로마찌 1505년, 일본 나라 다이마테라(當麻寺)

기 위한 회화적 장치로, 중국 당대 〈16관변상도〉의 구품왕생장면에 표현된 내영장면에서부터 보인다(도 6). 일본에서 발생한 아미타내영도상이 당대 〈16관변상도〉의 9품왕생장면의 영향을 받았던 것은 8세기 중반경 당나라의 정토도가 일본 나라의 다이마테라에 전래되었기 때문일 것이다.<sup>17</sup> 헤이안말기~가마쿠라시대에 호넨(法然, 1133~1212)이 개창한 정토종이 융성함에 따라 8세기 중엽 경에 전래되었던 綴織의 〈다이아만다라〉를 모본으로 수많은 만다라가 조성되었다. 이 중 1505년에 제작된 다이마테라 소장의 만다라에 그려진 상품상생 장면을 보면(도 10) 일본 내영도상의 성립에 미친 영향이 명확히 보인다.

일본에서 초기에 제작되었던 아미타내영도상은 기존의 아미타불도상을 차용하여 定印의 수인을 한 좌상으로 표현되었다. 이후 수인이 轉法輪印으로 점차 바뀌었고, 12세기 후반에는 오른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왼손을 무릎 위에 놓는 수인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도 9).<sup>18</sup> 이러한 수인을 일본에서는 ‘내영인’이라 하였는데, 아마도 내영도상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생각된다.

헤이안 후기 아미타불 도상의 수인이 내영인으로 변화하게 된 배경에는 송으로 유학을 떠났던 일본 승려들이 돌아오면서 송의 불교문물을 적극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이다.<sup>19</sup> 그 중 일본의 아미타내영도상에 송대의 아미타불입상의 도상을 접목시킨 인물이 헤이안 말기의 승려인 초겐(重源, 1121~1206)이다. 그는 3차례에 걸쳐 절강성 영파지역으로 유학을 갔다 돌아온 후 나

<sup>17</sup> 키타자와 나츠키(北澤 菜月), 『當麻寺と當麻曼荼羅の信仰史正』, 『當麻寺』(奈良國立博物館, 2013), p. 7.

<sup>18</sup> 오타히로 타로(太田博太郎) 외 2인 監修, 앞의 책, pp. 82~92.

<sup>19</sup> 가마쿠라시대의 南都(현대의 나라)에 송대회화를 소개했던 집단은 초겐을 중심으로 한 남도부흥집단, 西大寺의 에 이손(叡尊, 1201~1290)을 중심으로 한 울주교단, 엔쇼(圓照, 1221~1272)에 의해 증흥된 東大寺 戒壇院周邊 3개의 집단이다. 마스키 류스케(増記隆介), 『南都眉間寺舊藏羅漢圖試論』, 『大和文華』106(2001), p. 15.



도 11 <觀經十六觀變相圖>, 가마쿠라 13세기, 비단에 채색, 128,5×61,5cm, 일본 나라 아미다지(阿彌陀寺)



도 12 <아미타삼존상>, 헤이안 12세기 후반, 목조, 일본 교토 조토지(淨土寺)



도 13 <아미타25보살내영도>, 가마쿠라 14세기, 일본 교토 지온인(知恩院)

라 도다이지(東大寺)를 중심으로 南道佛敎를 부흥시켰던 인물이다.<sup>20</sup> 그는 송에서 아미타삼존도와<sup>21</sup> 관경변상도 등을 수입하였다고 전한다.<sup>22</sup> 실제로 나라의 아미다지(阿彌陀寺)에 전하는 <16관변상도>와 (도 11)<sup>23</sup> 교토의 조토지(淨土寺) 아미타불입상은 남송의 작품을 모본으로 제작된 것이다(도 12).<sup>24</sup> 초젠이 영파 지역에서 가져온 작품들은 송의 아미타불도상을 일본의 아미타내영도상에 이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초젠이 남송에서 수입해온 아미타불 도상은 당시 내영하는 아미타불의 수인 뿐 아니라 자세도 좌상에서 입상으로 변화시켰다. 교토 지온인(知恩院) 소장의 <早來迎圖>는(도 13) 가마쿠라시대인 14세기의 작품으로, 자세와 수인의 변화 등이 명확히 보인다. 특히 화면의 오른쪽에서 구름을 타고 속도감 있게 내영하고 있는 아미타불과 선두에 연화대좌를 받쳐 든 관음보살과 세지보살, 후미에 극락의 음악을 연주하는 제성중과 화불이 함께 오고 있는 모습은 당시 실제로 행

<sup>20</sup> 초젠의 3차에 걸친 입송과 행적에 관해서 「特別展『聖地寧波』關係年表」, 『聖地寧波』(奈良國立博物館, 2009), pp. 238-239 참고. 이와타 시게키(岩田茂樹), 「重源の生涯とその事蹟—佛像を中心に」, 『大勸進 重源』(奈良國立博物館, 2006), pp. 7-22.

<sup>21</sup> 重源, 『南都阿彌陀佛作善集』, 「高野新別所」, “播磨并伊賀丈六奉爲本樣畫像阿彌陀三尊—鋪唐筆.”

<sup>22</sup> 관경16관변상도를 수입하였다는 사실은 초젠의 『雀扇集』에 “十六觀想—鋪”을 청래했다는 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마스키 류스케(増記隆介), 앞의 논문, p. 15

<sup>23</sup> 쿠루마키 키오야지(濱田隆), 「南都阿彌陀寺所藏 觀經十六觀變相圖について」, 『大和文化研究』4권 4호(1957.3), pp. 13-23.

<sup>24</sup> 이와타 시게키(岩田茂樹), 앞의 논문, pp. 7-22.

했던 영강의 형태를 원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님이 앉아 있는 왕생원 도상은 임종행의에 근거한 도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도상은 지온인본 〈早來迎圖〉 외에도 일본 淨嚴院 소장의 〈아미타내영도〉와 淸涼寺 소장 의 〈영접만다라도〉,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의 〈아미타성중내영도〉 등에서 볼 수 있다.<sup>25</sup>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임종 시에 아미타부처님이 극락의 성중을 이끌고 사바세계로 내려와 왕생자를 맞이하는 것이 내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본에서 특별히 임종행의가 성행하면서 내영도상이 유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기의 내영도 도상은 당대 〈16관변상도〉의 구품왕생장면에 연원을 두고 있으나 12세기 후반 경부터 일본의 아미타불도상은 송대 아미타불 도상의 영향을 받아 수인의 형태가 바뀌고 입상이 유행하게 되었다.

## 2. 송대 정토왕생문화의 개화와 영파의 아미타불입상

### 1) 송대 정토왕생신앙의 성행과 천태승려들의 역할

일본의 아미타불 도상의 변화를 가져왔던 송대의 불화는 절강성 영파지역에서 조성된 것이 대부분이다.<sup>26</sup> 영파지역은 송대 국가차원의 해상교역의 중심지이자 송 불교문화의 수출창구로서 의미가 깊다.<sup>27</sup> 중국에서 당 말기 전란과 845년 武宗의 會昌廢佛로 쇠퇴하였던 불교의 중심이 당대의 수도였던 장안과 낙양에서 절강성으로 옮겨지면서 항주와 영파는 송대 불교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吳越王 錢弘俶(929~988)은 會昌의 廢佛로 사라진 천태전적을 고려와 일본으로부터 구해와 쇠퇴하였던 천태종을 크게 부흥시켜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사상적 바탕을 마련하였다.<sup>28</sup>

송대의 정토신앙은 천태종, 선종 등 여러 종파에서 행해져 천태와 정토융합, 선과 정토쌍수 등 일종의 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정토신앙이 일반 대중 사이에 깊이 침투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승려들은 천태종승이다. 이들은 다른 종파의 승려들과 달리 『往生傳』을 적극적으로

<sup>25</sup> 요시무라 토시코(吉村稔子)는 源信의 내영도가 오월의 十六觀變相圖나 16관도에서 독립된 구품왕생의 上品의 내영도상을 모본으로 그린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다. 吉村稔子, 「淸涼寺藏迎接曼荼羅と上品上生往生願」, 『美術史』 126(1989), pp. 119-133.

<sup>26</sup> 이테세이노스케(井手誠之輔), 『日本の宋元佛畫-日本の美術 418』(至文堂, 2001.3), pp. 36-59.

<sup>27</sup> 에비네 토시오(海老根聰郎), 『寧波佛畫の故郷』, 『國華』 1097(1986. 10), pp. 20-30. 타니구치 코세이(谷口耕生), 『聖地寧波をめぐる信仰と美術』, 『聖地寧波』(奈良國立博物館, 2009), pp. 6-16.

<sup>28</sup> 『佛祖統紀』卷8, T. 9, p. 191a.

로 편집하여 유포시킴으로써 민중에게 정토신앙을 고양시켰다.<sup>29</sup> 한편 정토관련 의식집을 정비하고 자신이 머무는 사찰을 중심으로 관직에 있는 지배계층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까지 포섭한 염불결사를 추진하여 정토수행을 함께 하였다.<sup>30</sup>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四明知禮(960~1028)이다. 사명지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천태사상과 신앙이 직·간접적으로 고려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sup>31</sup>

사명지례가 주도한 念佛施戒會는 송대 정토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송대에는 정토왕생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결성된 염불결사가 절강성과 강소성을 중심으로 보이는데,<sup>32</sup> 염불시계회는 다른 결사의 모델이 되었다. 영파의 四明山에 위치한 延慶寺를 중심으로 1013년 최초로 결성되었고, 매년 2월 정기적으로 법회를 가지면서 남송이 멸망할 때까지 약 200여년 이상 지속되었다. 염불시계회는 210명의 결사 분회의 지도자들이 각자 48명의 조원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분회를 거느린 구조였다. 평상시에는 210여개의 소규모 분회들로 나누어 개별 결사자들만의 친밀한 회합을 하다가 매년 2월 15일에 만 여명의 구성원이 함께 모여 법회를 거행하는 거대 결사를 형성하였다. 그들은 지도자 집단과 대중을 아우른 소규모 분회를 따로 운영하는 이중구조의 방식을 취하는 한편 근기가 낮은 대중에게는 염불수행을 권하여 대중적인 수행의식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33</sup>

사회 저변에 확산되었던 염불결사와 그로 인해 형성된 수행문화는 아미타불 도상이 새롭게 창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당시 정토왕생수행문화의 근간을 형성했던 것이 관상수행이었다. 觀想은 일반적으로 사물의 외관을 시각을 통해 감각적으로 '觀'하는 事觀과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진리의 실상을 관찰'하는 理觀으로 나뉜다. 염불시계회를 주관했던 사명지례는 천태종을 개창한 天台智顛(538~597)의 『摩訶止觀』에 서술된 실천적 수행법인 止觀수행을 따르고 있다. 지관수행은 마음 속에 空·假·中の 三諦가 있음을 알고, 生死, 煩惱의 境地에서 벗어나 涅槃, 보리에 들어가는 道를 닦는 一心三觀의 수행을 말한다. 一心三觀은 하나의 마음에 모든 것이 갖추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수행인 것이다.

사명지례는 천태지어의 『觀無量壽佛經疏』(이하 『관경소』)에 근거를 두고 『觀無量壽佛經融

<sup>29</sup> 송나라시대 정토신앙이 유행하게 됨에 따라 『往生傳』이 빈번하게 편집되어 거의 10여부가 알려져 있다. 모치즈키 신코(望月信亨)著, 李太元譯, 『中國淨土教理史』(운주사, 1997), pp. 411-412.

<sup>30</sup> 사토 세이준(佐藤成順), 『北宋時代の杭州の淨土教者』, 『宋代佛教の研究-元照の淨土教』(山喜房佛書林, 2001), pp. 162-163.

<sup>31</sup> 이승희, 앞의 논문(2013), pp. 19-22.

<sup>32</sup> 모치즈키 신코(望月信亨)著, 李太元譯, 『中國淨土教理史』(운주사, 1997), pp. 394-398.

<sup>33</sup> 김성순, 앞의 책, pp. 193-206.

心解』(1014년), 『觀無量壽佛經疏妙宗鈔』(1021년, 이하 『묘종초』) 등을 저술하여 지관수행에 근거한 천태16묘관수행법을 재정립하여 일상의식으로 끌어들었다.<sup>34</sup> ‘청정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관상하는 16묘관수행법은 마음 속에 정도가 있고 스스로가 미타의 성정을 갖추고 있음을 깨닫는 수행법이다. 부처나 정도를 마음으로 파악하려는 ‘唯心淨土 自性彌陀思想’은 禪宗과 華嚴宗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졌던 정도관이었기 때문에 실천적인 16묘관수행은 사회에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16묘관수행이 사찰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은 사명지례의 법손인 介然이 延慶寺에 16觀堂을 창건하였던 사실과<sup>35</sup> 항주 上天竺寺에도 16관당이 건립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sup>36</sup> 그 결과 영파 주변에서는 唐代의 〈관경변상도〉와는(도 5) 전혀 다른 구성과 도상을 가진 〈16관변상도〉가 창출되었다(도 7, 11).<sup>37</sup> 당대의 16관변상도는 아미타정토도의 주변에 배치되어 부수적이고 설명적인 느낌이 강하였다. 반면 송대 이후에는 중앙의 아미타정토도가 빠지고 〈16관변상도〉만을 독립적으로 제작하여 수행을 위한 불화로 따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9품왕생장면은 내영장면이 아닌 왕생 이후에 극락정토에서 왕생자가 아미타설법을 듣고 있는 장면으로 변화되었다. 〈16관변상도〉에서 내영장면이 사라진 상황에서 새롭게 창출된 입상의 아미타불도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



도 14 〈아미타삼존도〉, 남송 13~14세기, 비단에 채색, 102.8×57.4cm, 일본 교토 젠린지(禪林寺)

## 2) 아미타불입상과 관경16관변상도와의 도상 비교

송대 입상의 아미타불도상은 정면을 향한 경우와(도 14) 측면향을 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sup>34</sup> 사명지례의 천태정토사상과 관법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자세하다. 金殷姬, 「『觀無量壽經疏妙宗鈔』의 淨土思想」, 『天台思想과 東洋文化』(불지사, 1997), pp. 231-256. 同著, 「四明知禮의 天台淨土觀 研究-『觀無量壽經疏妙宗鈔』를 中心으로」, 『淨土學研究』創刊號,(1998), pp. 197-223.

<sup>35</sup> 延平陳瓘, 『樂邦文類』卷第3, 「延慶寺淨土院記」, “明州延慶寺住持比丘世有講席 以天台觀行為宗 自法智大師知禮……元豐中比丘介然……今延慶西隅尚有隙地 若得錢二千餘萬 構屋六十餘間 中建寶閣 立丈六彌陀之身 夾以觀音勢至 環爲十有六室 室各兩間 外列三聖之像 內爲禪觀之所 殿臨池水 水生蓮華 不離塵染之中 豁開世外之境……”

<sup>36</sup> 宋孝宗代(1127~1194)에는 항주 上天竺寺에도 16관당이 건립되었다. 林鳴宇, 『宋代天台教學의 研究』, (山喜房佛書林, 2003), p. 699 참고.

<sup>37</sup> 이승희, 앞의 논문(2013), pp. 5-34.



도 15 <아미타불도>, 남송, 일본 후쿠이현 사이후쿠지(西福寺)



도 16 13관, 도 11의 부분



도 17 <아미타정토도>, 남송 1180년, 비단에 채색, 150.5×92.0cm, 일본 교토 지온인(知恩院)

(도 15). 정면향을 한 아미타삼존이 모두 서 있다는 점에서 아미다지본 <16관변상도>의 13관 도상과 유사하다(도 16). 『관경』에 의하면 13관은 ‘여섯 장이나 되는 불상 한 분이 연못 위에 계신 것을 관할지니라’라고 쓰여 있어 원래 연못 위에 서있는 아미타불을 관상하는 관이다.

남송대 아미타불도 가운데 13관을 독립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불화가 1180년 <아미타정토도>이다(도 17). 상단에 불·보살이 허공 중에 나투시고 아미타삼존의 앞에는 연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연꽃 위에는 화생한 왕생자의 형상들이 합장을 한 채 엎드려있거나 우리러보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 『관경』에서 13관을 섞어서 생각한다는 의미의 ‘雜想觀’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토의 여러 가지 모습 즉 1-12관까지의 모든 장면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sup>38</sup> 13관은 부처님의 불, 보살을 관상하는 正報觀 중 마지막 관으로 『관경』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미타불은 신통력과 지혜로서 지방 국토에 나투시는 것을 자재로 하여 혹은 큰 몸을 나투시어 허공 가운데 가득 차기도 하고, 혹은 작은 몸을 나투시어 여섯 길 여덟 자가 되기도 하는데

<sup>38</sup> 츠보이 슈네이(坪井俊映) 著, 李太元 譯, 앞의 책, pp. 462-463.

나투시는 형상은 모두 진금색이고 등근 공명 속의 화신 불 및 보배 연꽃은 위에서 설한 바와 같으니라.”<sup>39</sup>

위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180년 <아미타불도>의 아미타삼존불은 서방극락정토의 허공 중에 나투신 모습을 형상화한 것임이 확실하다. 『관경』의 13관을 독립된 도상으로 표현한 이 불화는 서방극락정토에서 사바세계로 왕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기 위해 강림하는 내영과는 다른 개념으로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측면을 향한 채 허공의 구름을 타고 있는 아미타불의 형상은 일본 엔쇼지(圓照寺) 소장인 남송~원대의 <관경서분변상도>에서 확인된다(도 18, 18-1). 하단에 위제희왕비가 석가모니불에게 설법을 듣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중단의 오른쪽에는 위제희왕비가 승려와 함께 수행을 하고 있으며 상단의 왼쪽 허공에는 긴 꼬리를 단 구름 위에 아미타삼존의 표현되어 있다.



도 18 <관경서분변상도>, 남송~원, 비단에 채색, 112.9×59.7cm, 일본 나라 엔쇼지(圓照寺)

확인 가능하다. 북송대의 학자인 陳瑩中이 쓴 「정토원기」에 ‘16묘관 수행을 하니 『관경』에 의해 연경사의 연지 앞에 아미타불이 出視’하였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sup>40</sup> 또 다른 기록으로 남송대 승려인 元照도 「開元寺三聖立像記」에서 ‘개원사에 아미타삼존 입상을 세우고 16묘관수행을 하니 『관경』에 근거해 허공 중에 現出’한 아미타삼존을 보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sup>41</sup> 이 두 기록

<sup>39</sup> 『觀無量壽經』, T, 12, p. 344c02-345c04, “……阿彌陀佛神通如意 於十方國變現自在 或現大身滿虛空中 或現小身丈六八尺 所現之形皆眞金色 圓光化佛及寶蓮花 如上所說……”

<sup>40</sup> 宗曉(1151~1214), 『樂邦文類』卷第3, “草菴錄曰 陳瑩中作淨土院記……師每以淨土法門誘其學者 欲使人人知釋迦有淨土彌陀來穢土 他時所志於心者 一日必矚於目 乃依十六觀經 而出視之 爲彌陀大像 以臨池……”

<sup>41</sup> 大智律師元照, 『樂邦文類』卷第3, 「開元寺三聖立像記」, “三聖立像 見于觀無量壽佛經……故令繫想聖緣 十六妙觀……俄於太虛中 現出三聖……”

에서 보듯 16묘관수행의 결과로 아미타불이 ‘現出’ 혹은 ‘出視’하였다는 사실은 엔쇼지 <관경서 분변상도>의 화면 구성을 통해서 구현된다. 즉 위제희왕비가 석가모니불에게 『관경』의 수행법을 듣고 16묘관수행을 하니 허공 중에 ‘出視’ 혹은 ‘現出’한 아미타삼존을 감득하였다는 것을 불화를 통해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관경변상도와의 도상비교와 각종 기록을 통해 정면향을 하든 측면향을 하든 송대 아미타불입상 도상은 타방정도에서 왕생자를 향해 강림하는 내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出視’ 혹은 ‘現出’의 개념은 아미타불화의 구름표현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구름의 표현은 강림을 상징하는 내영도상의 중요한 근거이지만 송대 아미타불도에 표현된 구름은 매우 정적이어서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는 바로 관상수행을 통해 마음속으로 감득한 순간 허공 중에 출현한 아미타불을 시각적인 일루전(幻影)으로 형상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송대 영파 주변에서 창출된 입상의 아미타불도상은 『관경』의 구품왕생장면에 근거를 둔 아미타내영도상이 아니다. 도상적으로 『관경』의 13관과 유사할 뿐 아니라 송대의 여러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16묘관 수행을 위한 관상용 불화 또는 수행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시각적 일루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미타불삼존은 16묘관 수행을 통해 수행자가 감득하는 극락세계에 나투신 불, 보살인 것이다. 이들은 16묘관수행을 통해 청정한 마음을 얻게 되었을 때 마음 속에 감득한 형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唐代에는 내영신앙이 성행하면서 죽음에 임박해서 행해지는 임종행의가 극락왕생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sup>42</sup> 그러나 송대 이후에는 죽음에 임박하여 행해지는 임종행의보다는 현세적인 수행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송대 이후 천태 혹은 선종 승려들이 유심정토사상을 기반으로 한 선관수행을 중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한 타력적인 힘에 의지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한 수행을 통해 불성을 깨닫고 아미타불을 감득할 수 있는 自力的인 의미의 왕생을 중시하는 보다 고차원적인 수행문화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sup>42</sup> 중국의 임종행의는 2가지 계열이 있는데, 율종승 道宣(596~667)에 의한 임종행의와 善導에 의해 주도된 임종행의이다. 八九廣超, 『臨終正念について』, 『印度哲學佛教學』21, 2006, pp. 135-136.

## IV. 고려 입상 아미타불 도상의 재해석

고려 입상의 아미타불 도상은 남송 영파지역의 아미타불도상과 친연성이 있다. 일본 쇼보지(正法寺)에 소장되어 있는 14세기의 〈阿彌陀佛圖〉에는(도 1) 구름조차 표현되지 않아 매우 정적인 느낌을 주며, 몸을 살짝 틀고 있는 아미타불의 자세와 오른 손을 내린 수인은 송대 아미타불 입상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도상이다(도 15). 이 밖에도 고려와 송대의 아미타불도상이 일치하는 사례는 매우 많다. 일본 교토 지온인 소장인 고려후기 〈阿彌陀佛圖〉에서 아미타불이 머리를 약간 숙인 채 오른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은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인 〈阿彌陀佛圖〉와 매우 유사하다.<sup>43</sup> 또한 교토 지온지(知恩寺)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 〈阿彌陀三尊圖〉도(도 2) 일본 나라 엔쇼지(圓照寺) 〈觀經序分變相圖〉의 아미타삼존의 현출장면과 유사하다(도 18). 이처럼 서있는 자세와 아미타불의 복식과 수인 등이 거의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남송 불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단순히 아미타불 도상만 유입된 것이 아니었다. 각종 기록과 역사적인 전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남송의 천태정토신앙과 정토왕생수행문화까지도 함께 수용되었다는 사실이다.<sup>44</sup> 절강지역에서 융성했던 천태정토사상이 고려에 유입된 시기는 천태종의 개창에 앞서 송에 유학을 갔던 의천이 사명지례의 법맥을 이은 慈辯從諫(?~1109)의 천태법을 전수받아오면서부터이다.<sup>45</sup> 그러나 천태정토신앙이 사회저변에 확산되어 꽃을 피운 계기는 圓妙了世(1163~1245)의 백련결사에 의해서이다. 백련결사에서는 ‘法華三昧 求生淨土’라고 하여 법화참법수행을 통한 정토왕생신앙을 강조하였다.<sup>46</sup> 이들 백련결사자들은 송대 천태 산가파 승려들의 영향을 적극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각종 기록에 천태 산가파의 거두인 지례를 흠모하였던 승려들의 글과 사명지례의 『묘중초』를 중시했던 기록이 전한다. 또한 지례가 주석했던 영파 연경사의 승려들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했던 사실도 확인된다.<sup>47</sup>

<sup>43</sup> 이승희, 앞의 논문(2011), p. 224의 도 30과 40참고.

<sup>44</sup> 남송의 천태정토신앙과 정토왕생수행문화가 고려후기 정토불화의 조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이승희, 앞의 논문(2011, 6)에 자세히 연구되어 있다.

<sup>45</sup> 의천은 四明知禮의 법맥을 이은 慈辯從諫에게서 천태법을 전수받고 전법의 신표로 手爐와 如意를 받았다. 『佛祖統紀』卷14 義天條, pp. 223c11-16, “及見天竺慈辯 請問天台教觀之道……奉慈辯所傳教文 立其像爲初祖”; 『大覺國師文集』卷10, “……請遣師還國 遂詔到關辭還師欲登道慈辯大師從諫著詩一首 贈手爐如意 師在本國……”

<sup>46</sup> 崔滋, 『東文選』卷117,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銘 并序」, “……以壬辰夏四月八日 始結普賢道場 修法華三昧 求生淨土……”에도 기록되어 있다.

<sup>47</sup> 이승희, 앞의 논문(2013), pp. 20-21의 표2, 3 참고.

지방에서 시작된 백련결사운동이 왕실을 중심으로 한 개성의 귀족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 계기는 1284년 충렬왕이 제국대왕공주와 함께 수도 개정에 천태종 사찰인 妙蓮寺를 창건하고 왕실의 원찰로 삼은 일이다.<sup>48</sup> 이때 국가차원에서 행한 『法華經』과 천태지의가 해석한 天台疏 연구는 고려 후기 천태사상의 교학적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한편, 개성의 중앙 귀족사회에 천태정도수행문화를 확산시켰다.<sup>49</sup> 이러한 사실은 천태지의의 『관경소』의 연구를 통해 천태16묘관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조성되었던 <16관변상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묘관수행이 당시 귀족 사회에 제대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1323년 지온인(知恩院) 소장인 <16관변상도>의 화면구성과 여인도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50</sup>

충렬왕대(1274~1298년 재위, 1299~1308년 복위)부터부터 충선왕, 충숙왕대(1313~1330 재위, 1332~1339)까지는 천태종이 왕실의 후원에 힘입어 선종 이상의 강대한 세력을 형성했던 시기이다. 특히 무외국사(?~1318)가 묘련사를 주관하던 시기는 천태교리를 배우는 사람이 더욱 몰렸고, 선교의 다른 절들이 감히 바라보질 못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sup>51</sup> 이러한 기록을 볼 때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까지 천태사찰인 묘련사가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선종, 교종을 아울러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천태종이 왕실 및 귀족사회의 불교신앙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종파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던 시기에, 특정 도상의 아미타불화가 가장 많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은 고려후기 귀족사회에 16묘관수행이 일상화되면서 도상이 복잡한 <16관변상도>보다는 그 핵심만을 표현한 아미타불화가 선호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끝으로 이제까지 고려후기 입상의 아미타도상을 모두 내영도상으로 인식하게 하였던 삼성미술관 Leeum 소장의 <아미타내영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아미타내영도가 조성되었던 시기는 중국과 일본 모두 공통적으로 임종행의가 성행했던 시기이다. 임종행의가 불교의식으로 정립한 시기는 중국 당대로, 율종승 道宣(596~667)과 정토종승인 善導

48 이외에도 천태종이 부흥하면서 국청사의 중수도 이루어졌다. 국청사는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면서 그의 어머니인 예왕후가 발원하여 건립되었는데 몽고 침략 때 불타버렸다. 충선왕은 1308년에 즉위하자마자 중수하였다. 이어 충숙왕은 1315년에 국청사 금당을 중수하고 경찬을 베풀기도 하였다. 閔漬, 『東文選』卷68, 『國清寺金堂主釋迦如來舍利靈應記』.

49 강호선은 妙蓮寺는 경전을 절요하기 보다는 주석서를 편찬하는 등 교학연구에 치중했고, 천태종의 개조로서 의천을 높이 평가하였던 점은 백련결사의 정신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姜好鮮, 『원간집기 천태종단의 변화 : 충렬·충선왕대 묘련사계를 중심으로』, 『보조사상』16(2001), pp. 351-356.

50 이승희, 「1323년 知恩院 소장 觀經16관변상도와 천태관상수행」, 『불교미술사학』 20(2015,11), pp. 39-73.

51 李齊賢(1287~1367), 『東文選』卷118, 『妙蓮寺重興碑』, “……開山者 師子庵老宿洪恕 實惟其人圓慧國師主盟結社 三傳而至無畏國師學者益臻……凡所以光護院門 禪教列刹 莫敢望焉……”

가 주도하였고 송대에 들어서는 元照(1048~1116) 문하의 율종승과 그 주변에서 행해졌을 뿐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였다.<sup>52</sup> 일본에서 임종행의가 특별히 유행하며 아미타내영도가 적극적으로 그려졌던 시기는 호넨이 선도의 영향을 받아 염불 한 가지만을 정토왕생의 업으로 삼는 專修念佛을 수행법으로 정토종을 개창하였던 때이다.<sup>53</sup>

그렇다면 고려후기에 임종행의가 성행할 수 있는 신앙적 바탕이 마련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려는 중국, 일본과 다른 불교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화엄종과 선종의 전통이 강했을 뿐 아니라, 귀족적인 성격이 강한 고려후기 불교계는 대중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선도의 정토교리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다. 또한 무인집권 하에서 백련결사가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자연스럽게 천태사상에 근거한 자력적인 수행을 강조하는 정토신앙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불교 분위기에서 아미타불의 내영을 기원하는 타력적인 성격이 강한 임종행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말년에 別院에 물러나 서방정토의 왕생을 구했던 원묘요세의 임종행의를 적은 기록을 살펴보면 임종행의의 성격을 볼 수 있다.<sup>54</sup> 그 내용에는 임종행의를 위한 아미타불화에 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제자인 천인과의 문답에서 '定에 든 마음이 곧 정토'라는 말과 '나는 가지 않아도 가는 것이요, 저들은 오지 않아도 오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있어 천태사상에 기반을 둔 유심정토왕생관을 드러내고 있다.

임종행의를 베푸는 가장 큰 목적은 아미타불의 타력적인 힘에 의존하여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천태종에서는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마음 속의 정토를 깨닫는 자력적인 왕생을 추구한다. 아미타불이 사바세계의 왕생자를 영접하기 위해 강림한다는 타력적인 구원이 반영된 아미타도상은 천태사상에 의한 정토왕생관과는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고려후기 아미타불화의 대부분은 임종행의를 목적으로 조성되었다기 보다는 주기적으로 행해졌던 일상의식에 소용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개성의 寶岩寺라는 절에서 물러난 재상들이 法華社를 조직하여 다달이 六齋日에 각기

<sup>52</sup> 사토 세이준(佐藤成順), 「中國佛教における臨終にまつわる行義」, 『宋代佛教の研究—元照の淨土教』(山喜房佛書林, 2001), pp. 421-466.

<sup>53</sup> 伊藤 唯眞(이토우 유신)의 2명, 「淨土宗の成立と祖師信仰」, 『淨土教—圖說 日本の佛教 三』(新潮社, 1989), pp. 286-293.

<sup>54</sup> 崔滋, 『東文選』卷117,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銘」, “……師於乙巳年夏四月 以院門佛事 付上首弟子天因 退居別院 蕭然坐忘 專求西邁 是年六月晦日齋時 呼監院告言……每坐臥袞袞唱念不輟 至六日 澡浴更衣 坐定彌日……至七日 丑時 命侍者擊磬集衆 索水盥漱 着法服升坐踟躕 面西而坐 告衆云五十年山林朽物 今日行矣 各自努力 爲法勉旃 天因問云 臨終在定之心 卽是淨土 更欲何之 師云不動此念 當處現前 我不去而去 彼不來而來 感應道交 實非心外 言訖卽斂念 然印如入禪定…….”

『法華經』을 함께 탐구하고 매달 15일이 되면 아미타여래를 공양하고 다같이 정토에 가기를 기원하였다.<sup>55</sup>

위의 기록은 了圓이 지은 『法華靈驗傳』에 나오는 내용으로, 죽음에 임박한 왕생자를 위한 임종행의 보다는 후일에 정토에 왕생하기를 꿈꾸며 일상적으로 꾸준히 베풀어졌던 수행의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종행의와의 관련 속에서 삼성미술관 Leeum 소장의 〈아미타내영도〉를 인식하기 보다는 역시 당시 성행했던 천태정토신앙의 범주 안에서 불화를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의 〈아미타내영도〉는 고려 후기 아미타불도의 유형 중 왕생자가 표현된 매우 이례적인 예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 시마쓰가 구소장본인 1286년 〈아미타불도〉(도 19) 왕생자는 아니지만 아미타불의 오른발 옆에 연꽃이 표현되고, 몸을 살짝 돌린 자세를 취하고 있어 희귀한 도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화기에 조성연대와 발원지, 그리고 『화엄경』, 『보현행원품』의 경설에 근거한 정토왕생관까지 적혀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sup>56</sup> 이 불화에 관해서는 한정된 지면에 서술하기 어려우므로 아미타팔대보살도와 지장보살이 포함된 아미타삼존도 등과 함께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도 19 〈阿彌陀如來圖〉, 高麗 1286년, 비단에 채색, 203.5×105.1cm, 일본 도쿄 시마쓰가(島津家) 구소장

## V. 맺음말

고려와 송, 그리고 일본 멀리 서하까지 12~14세기까지의 동아시아에는 오른 손 혹은 왼손을 앞으로 내민 채 허공에 서있는 형상의 아미타불 도상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화를 아

<sup>55</sup> 了圓, 『法華靈驗傳』, “……德山山之乾維有一蘭若曰寶岩樓閣開豁坐見山川縹緲之外東北里致仕卿相若林樞密千美秦尚書世儀梁大卿棟材與諸長老并散逸四十餘人同結法華社每月六齋日各持科本蓮經差一人別座點破科端銷釋義理……至十五日則精設妙饌供養彌陀合院設齋夜精勤同迴向淨土故至臨終之際如意自在者不絕焉。”

<sup>56</sup> 필자는 남송에서 전래된 『왕생전』과의 연관 속에서 도상을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박사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 이승희, 앞의 논문(2011.6), pp. 112-114.

미타내영도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각 나라의 역사·불교문화의 전개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불화를 연구할 때 형상 비교를 통한 도상의 이해라는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도상을 불교신앙과 사상 그리고 불교의식이 내포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산물로서 인식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두고 싶다.

이제까지 고려 아미타불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혼동되었던 개념이 '내영'이다. 내영은 『무량수경』과 『관경』에 서술되어 있지만 내영신앙이 발달했던 지역과 시대는 다르다. 아미타내영신앙과 임종행의를 전제로 발달했던 일본의 정토문화 속에서는 아미타내영도가 널리 조성되었다. 이에 비해 송대의 정토문화는 절강성 영파지역을 중심으로 천태승려들이 주축이 되어 꽃피웠으며, 염불시계회와 같은 염불결사를 통해 사회저변에 확산되었다.

남송대의 각종 기록에는 송대의 고위 관리와 승려들이 행했던 관상수행에 대해서 禪觀修行 혹은 16妙觀修行이라고 되어 있다. 16묘관수행은 천태지지가 해석한 『관경』에 근거한 수행법으로, 송대에 크게 성행하면서 16관당이 건립되거나 당대와 다른 형태의 〈16관변상도〉가 창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과정에서 창출된 입상의 아미타불화는 천태16묘관수행을 위한 관상용 불화 혹은 수행 후 감득할 수 있는 시각적 환영이자 현출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미타불이 직접적으로 내영하여 왕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아미타불 본원에 의지한 타력적인 신앙보다 일생동한 정토왕생을 위한 수행을 추구하며 마음 속에 부처를 찾고자했던 송대 이후의 변화된 수행 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고려후기의 아미타불화는 남송의 불화 도상을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영파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천태정토신앙과 수행문화의 영향 하에 조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의천의 천태종 개창과 백련결사의 활동으로 인한 정토신앙의 대중화, 1284년 묘연사의 창건을 계기로 개경의 왕실과 귀족사회에 천태정토사상과 신앙이 뿌리를 내렸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내영도로 인식했던 고려후기 입상의 아미타불화는 16묘관 수행을 위한 관상용 불화로서 수행을 통해 감득할 수 있는 허공 중에 현출한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도 무방할 것이다.

고려후기에 성행했던 천태정토신앙은 불화의 조성에 영향을 상당히 크게 미쳤다. 또한 천태사상의 발상지인 영파 지역 불화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그러나 고려후기 아미타불화에는 송대의 불화와는 다른 많은 도상적 요소와 여타 다른 신앙적 요소도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아미타팔대보살도와 지장보살이 등장하는 아미타삼존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고려에서 이러한 도상이 성행했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 규명해야할 과제이며,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진다면 고려 아미타불화의 독자적인 성격을 밝히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제어(key words) 아미타내영(阿彌陀來迎, Amitabha's welcoming descent), 겐신(源信, Genshin), 영파(寧波, Ningbo), 사명지려(四明知禮, Siming Zhili), 염불시계회(念佛施戒會, *Nianfo shijie hui*), 16묘관수행(16妙觀修行, Sixteen Meditations Practice), 16관변상도(16觀變相圖, Illustration of Sixteen Meditations), 묘련사(妙蓮寺, Myoryeonsa Temple), 임종행의(臨終行義, death-related ceremonies)

■ 투고일 2015년 11월 30일 | 심사개시일 2015년 12월 8일 | 심사완료일 2016년 1월 20일 ■

## 참고문헌

### 〈經典·史料 및 圖錄〉

- 四明知禮, 『觀無量壽佛經妙宗抄』, T. 37  
雲棲株宏, 『往生集』, T. 51  
宗曉, 『樂邦文類』  
天台智顛, 『觀無量壽佛經疏』  
『觀無量壽佛經』, T. 12.  
『無量壽經』, T. 12.  
『大覺國師文集』  
『東文選』  
『佛祖統紀』, T. 9  
『고려시대의 불화』, 시공사, 1997.  
『大勸進 重源』, 奈良國立博物館, 2006.

### 〈韓國語 單行本 및 論文〉

- 김성순, 『동아시아 염불결사의 연구—천태교단을 중심으로』, 비움과 소통, 2014.  
미치바타료오슈(道端良秀), 계환 옮김, 『중국불교사』, 우리출판사, 1996.  
李永子, 『韓國天台思想의 展開』, 민족사, 1988.  
유마리, 『아미타불화의 연구』, 문화재청, 2012.  
장휘옥, 『정토불교의 세계』, 불교시대사, 1996.  
츠보이 슈네이(坪井俊映) 著, 李太元 譯, 『淨土三部經概說』, 운주사, 1995.  
姜好鮮, 『원간섭기 천태종단의 변화: 충렬·충선왕대 묘연사계를 중심으로』, 『보조사상』 16, 2001, pp. 333-369.  
金殷姬, 『四明知禮의 천태정토관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_\_\_\_\_, 『觀無量壽經疏妙宗抄』의 淨土思想, 『天台思想과 東洋文化』, 불지사, 1997, pp. 231-256.  
\_\_\_\_\_, 『四明知禮의 天台淨土觀 研究—『觀無量壽經疏妙宗抄』를 中心으로』, 『淨土學研究』 創刊號, 1998, pp. 197-223.

- \_\_\_\_\_, 「천태 정토사상(天台淨土思想)의 특징과 의의」, 『金剛』 통권211호, 2002.8, pp. 28-31.
- \_\_\_\_\_, 「知禮의 約心觀佛에 대한 연구-約心の 문제-」, 『佛教學報』 39, 2002, pp. 215-231.
- 朴桃花, 「高麗佛畫와 西夏佛畫의 圖像的 관련성: 阿彌陀三尊來迎圖와 慈悲道場懺法變相圖를 중심으로」, 『고문화』 52, 1998.12, pp. 65-83.
- 박혜원, 「고려시대 아미타내영도와 임종의례의 관련성 시론」, 『미술자료』 80, 국립중앙박물관, 2011, pp. 45-67.
- 윤기엽, 「元干涉期 天台宗寺院의 흥성과 불교계 動向」, 『韓國佛敎學』 37, 韓國佛敎學會, 2004. 5, pp. 187-223.
- 이승희, 「고려 후기 정토불교회화의 연구-천태·화엄신앙의 요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2011. 6.
- \_\_\_\_\_, 「고려 후기 서복사 관경십육관변상도의 천태정토신앙적 해석」, 『韓國美術史學』 279·280, 2013.12, pp. 5-34.
- \_\_\_\_\_, 「1323년 知恩院 소장 觀經16관변상도와 천태관상수행」, 『불교미술사학』 20, 2015.11, pp. 39-73.
- 菜尙植, 「高麗後期 天台宗의 白蓮社 結社」, 『韓國史論』 5, 國史編纂委員會, 1979.
- 許興植, 「無畏國師 丁午의 事業과 繼承」, 『天台思想과 東洋文化』, 불지사, 1997, pp. 41-63.
- 洪潤植, 『高麗時代의 佛畫』, 동화출판공사, 1984, pp. 78-167.
- \_\_\_\_\_, 「高麗佛畫에 있어來迎圖와 授記圖」, 『素軒南都泳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 1984.5, pp. 133-153.

## 〈日文 단행본 및 논문〉

- 林 鳴宇, 『宋代天台敎學の研究』, 山喜房佛書林, 2003.
- 賓田 隆, 『來迎圖』, 日本の美術 272, 1989.2.
- \_\_\_\_\_, 『鎌倉繪畫』, 日本の美術 206, 至文堂, 1983.
- \_\_\_\_\_, 『極樂への憧憬』, 美術出版社, 1975.
- 西郊良光, 『天台宗』, 大法輪閣, 2003.
- 安藤俊雄, 『天台學論集-止觀と淨土』, 平樂寺書店, 1978.
- 井手誠之輔, 『日本の宋元佛畫』, 日本の美術 418, 至文堂, 2001.3.
- 鄭于澤, 『高麗時代阿彌陀畫像の研究』, 永田文昌堂, 1990.
- 佐藤成順, 『宋代佛敎の研究-元照の淨土敎』, 山喜房佛書林, 2001.
- 太田博太郎, 中村 元, 濱田 隆 監修, 『淨土敎-圖說 日本の佛敎 三』, 新潮社, 1989.
- 河原由雄, 『淨土圖』, 日本の美術 272, 1989, 至文堂
- 菊竹淳一, 「高麗佛畫にみる中國と日本」, 『高麗佛畫』, 朝日新聞社, 1981.
- \_\_\_\_\_, 「高麗時代來迎美術の一遺例」, 『大和文華』 72, 大和文華館, 1983, pp. 15-24.

- 谷口耕生, 「聖地寧波をめぐる信仰と美術」, 『聖地寧波』, 奈良國立博物館, 2009, pp. 6-16.
- 吉村稔子, 「清涼寺藏迎接曼荼羅と上品上生往生願」, 『美術史』126, 1989, pp. 119-133.
- \_\_\_\_\_, 「三千院藏阿彌陀聖衆來迎圖考-來迎圖の成立に関する一考察」, 『美術史』161, 2006, pp. 146-163.
- 大西磨希子, 「淨土寺阿彌陀三尊像の造立における重源の宗教的意圖-元照の淨土思想の影響-」, 『美術史研究』34, 早稻田大學美術史學會, 1996. 12.
- 北澤 菜月, 「當麻寺と當麻曼荼羅の信仰史正」, 『當麻寺』, 奈良國立博物館, 2013, pp. 6-16.
- 賓田 隆, 「南都阿彌陀寺所藏 觀經十六觀變相圖について」, 『大和文化研究』4권 4호, 1957.3. pp. 13-23.
- \_\_\_\_\_, 「立像阿彌陀來迎圖成立史考-佛坐像から佛立像へ」, 『佛教藝術』126, 1979, pp. 21-42.
- 山本興二, 「來迎圖一の正面觀から斜め構圖への展開」, 『佛教藝術』78, 1970. 11, pp. 34-49.
- 西山 厚, 「重源と勸進」, 『大勸進 重源』, 奈良國立博物館, 2006, pp. 19-22.
- 岩田茂樹, 「重源の生涯とその事蹟-佛像を中心に」, 『大勸進 重源』, 奈良國立博物館, 2006, pp. 7-22.
- 井手誠之輔, 「至元二十三年銘「阿彌陀如來圖」の願文にみる阿彌陀淨土信仰」, 『靑丘學術論集』4,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1994.3.
- \_\_\_\_\_, 「時空の旅人-宋元佛畫をめぐる-」, 『宋元時代の佛畫』, 2007, pp. 9-23.
- \_\_\_\_\_, 「華嚴思想과 高麗佛畫의 범주」, 『高麗時代の佛畫』, 시공사, 1997, pp. 15-30.
- \_\_\_\_\_, 「宋·元代 불화의 특색-禮拜像의 視覺表象-」, 『동아시아 불교회화와 고려불화-제3회 국립중앙박물관 학술미술 심포지엄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2010, pp. 30-43.
- 増記隆介, 「南都眉間寺舊藏羅漢圖試論」, 『大和文華』106, 2001, pp. 7-23.
- 八九廣超, 「臨終正念について」, 『印度哲學佛教學』21, 2006, pp. 131-160.
- 河原由雄, 「淨土曼荼羅から迎攝圖へ-高麗·李朝觀經變相圖の展開」, 『日韓兩國所在韓國佛教美術共同調査研究 研究成果報告書』, 奈良國立博物館, 1993, pp. 47-52.
- 海老根聰郎, 「寧波佛畫の故郷」, 『國華』1097, 1986. 10, pp. 20-30.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 밝힌 점은 이제까지 내영도로 인식되었던 고려 입상의 아미타불화가 사실은 임종에 임박하여 강림하는 내영이 아닌 禪觀修行을 위한 이미지 혹은 그 결과로 얻어지는 現出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11~14세기 동아시아에서 성행했던 염불결사와 정토왕생수행법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각 나라의 수행문화와 그 결과물인 아미타불화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입상의 아미타불 도상을 재해석해 보았다.

일본의 정토문화는 임종행의와 함께 발전함으로써 내영신앙이 강하였고 그 결과 아미타내영도의 조성이 활발하였다. 이에 비해 송대의 정토문화는 절강성 영파지역을 중심으로 천태승려들이 주축이 되어 꽃피웠으며, 염불세계회와 같은 염불결사를 통해 사회저변에 확산되었다. 이들 염불결사의 주축세력인 고위 관리와 승려들은 선관수행 혹은 16묘관수행이라고 하여 정토왕생을 위해 관상수행을 하였는데, 송대 다수 조성되었던 입상의 아미타불화는 천태16묘관수행을 위한 관상용불화 혹은 수행 후 감득할 수 있는 시각적 환영이자 현출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고려후기의 아미타불화는 남송의 도상을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영파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천태정토 신앙과 수행문화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 조성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의천의 천태종개창과 백련결사의 활동으로 인한 정토신앙의 대중화, 1284년 묘연사의 창건을 계기로 개경의 왕실과 귀족사회에 천태정토사상과 신앙이 뿌리를 내렸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내영도로 인식했던 고려 후기 입상의 아미타불화는 16묘관 수행을 위한 관상용 불화로서 수행을 통해 감득할 수 있는 허공 중에 현출한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Abstract

# A New Analysis of the Standing Amitaba Images in Late Goryeo Buddhist Paintings: Based on the Influence of the Sixteen Meditations Practice of Tiantai Buddhism

Yi Seung-hui \*

This paper argues that standing Amitabha images in Goryeo Buddhist paintings, previously thought to be the illustrations of Amitabha's welcoming descent (來迎圖), are in fact images created to be used in meditation practice named *changuan xiuxing*(禪觀修行), or to depict its outcome, which is the manifestation of the Buddha Amitabha. This argument comes from a reinterpretation of the image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Buddhist communities for *nianfo*(念佛, chanting the Buddha) and practices aimed at achieving rebirth in the Pure Land that flourished in East Asia from the 11th to the 14th centuries, along with the analysis of the meditation practices performed in different regions and the Amitabha paintings they produced.

Pure Land Buddhism in Japan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death-related ceremonies, leading to a strong belief in Amitabha's welcoming descent to the deceased and the production of a number of the illustrations of Amitabha's welcoming descent. By contrast, Pure Land Buddhism in Song China flourished primarily among monks of the Tiantai (天台) school in the Ningbo region of Zhejiang Province, spreading through society by way of Buddhist

---

\* Hongik University

communities such as the *Nianfo shijie hui*(念佛施戒會). High-ranking officials and monks, the leading figures in these associations, practiced visualization aimed at rebirth in the Pure Land, such as the Sixteen Meditations Practice (十六觀妙觀修行). Standing Amitabha images produced during the Song dynasty were mostly created as the aid the Sixteen Meditations Practice of Tiantai school, or represents manifestation of the Buddha Amitabha, which is the outcome of the practice

Amitabha paintings of late Goryeo period assimilated iconographies in Southern Song Buddhist paintings and were produced in some aspect under the influence of the Tiantai Pure Land faith and meditation practices. It is conformed based on the popularization of the Pure Land faith as a result of Uicheon's founding of the Cheontae (ch. Tiantai) school in Goryeo and the formation of White Lotus Society (白蓮結社), along with the spread of Cheontae Pure Land belief among the royal family and the aristocracy in the Goryeo capital, Gaegyeong, after the establishment of Myoryeonsa Temple (妙蓮寺) in 1284. Accordingly, standing Amitabha images in late Goryeo Buddhist paintings, previously thought to be the illustrations of Amitabha's welcoming descent, can instead be regarded as the representations of the Buddha Amitabha manifested and suspended in the air, an image obtained through meditations, and functioned as the visual aid for the meditation practice.